



북미

# 한글학교 역사문화 수업자료

스포츠선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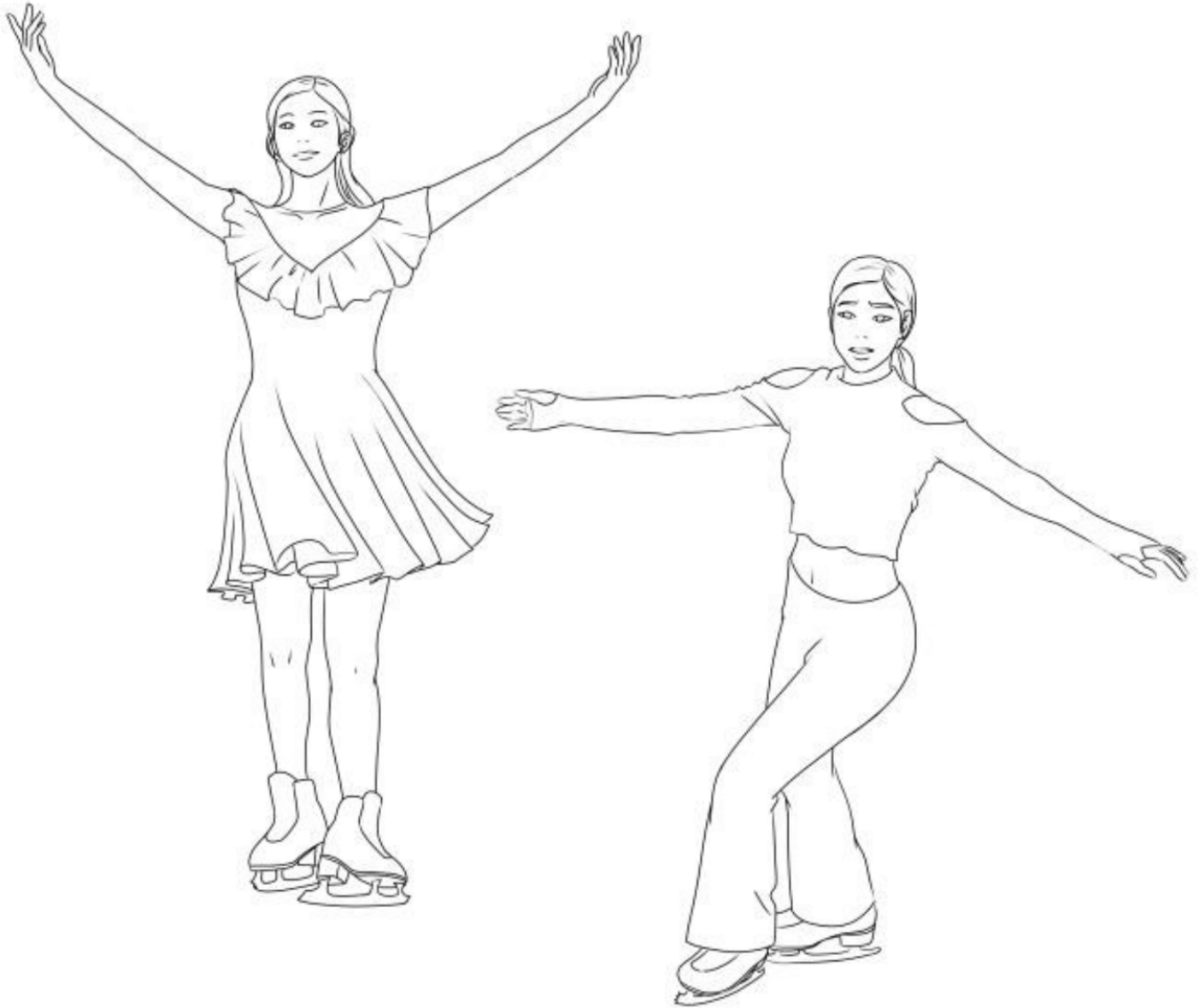




활동지 1



Let's color the skater outfit nicely in the picture below.





활동지 1

 Let's match the nicknames of Son Heung-min with the descriptions.

소니 (Sonny)

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을 맡게 되면서부터 생긴 별명이다.

손세이셔널  
(Sonsational)

영국에서 뛸 때 붙은 별명으로 '선샤인(sunshine)'에서 따왔다.

손샤인 (Sonshine)

독일에서 뛸 때 붙은 별명으로 '센세이셔널 (sensational)'에서 따왔다.

캡틴 손 (Captatin  
Son)

가장 널리 사용되는 손흥민의 애칭이다. 현지의 토트넘 팬들은 본명보다 이 별명을 더 많이 사용한다.



## 활동지 2



Here are some quotes from Korean athletes. Read carefully and write down who said them in the space below.

왜 직구보다 변화구에서 홈런이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? 변화구는 치기 어렵지만, 치기만 하면 회전이 많아서 더 멀리 날아가기 때문이에요. 지금 당신 앞에 치기 어려운 변화구가 날아오고 있습니까? 그럼 축하합니다. 지금 당신에게 홈런을 칠 기회가 주어졌으니까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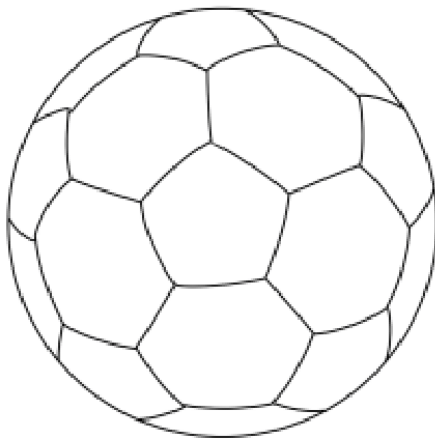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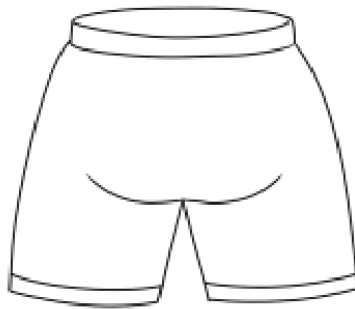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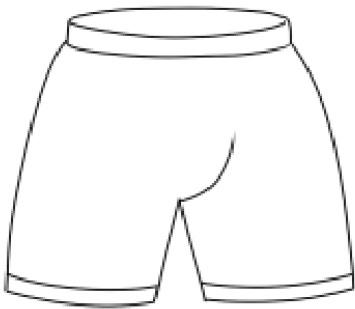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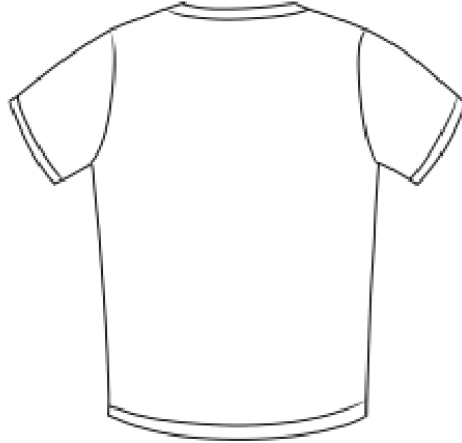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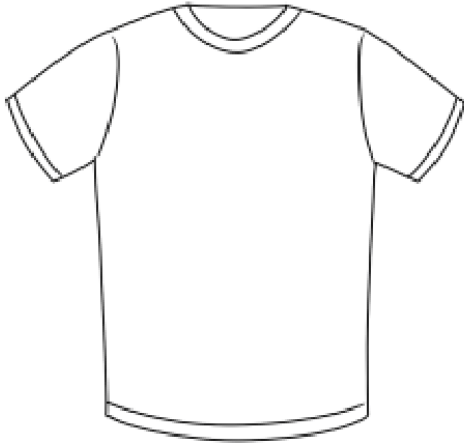
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. 근육이 터져 버릴 것 같은 순간,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,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.... 이런 순간이 오면 '이 정도면 됐어', '다음에 하자', '충분해' 하는 속삭임이 들린다. 이런 유혹에 문득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.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 한 것과 다를 바 없다.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이 끓지 않는다고 한다.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, 포기하고 싶은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. 이 순간을 넘어야 그다음 운이 열린다.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.



활동지 2



Let's color the uniforms for national team players.





활동지 2



Let's color the uniforms for national team players.

